

美 육군, 시코스키 항공사와 블랙호크 헬기 5년 계약 체결

美 육군은 시코스키 항공(Sikorsky Aircraft)社로부터 약 1조1천7백억원(15억불) 규모의 UH-60 블랙호크(Blackhawk) 헬기 3백대를 향후 5년간에 걸쳐 구매하기로 했다고 4월 28일 발표했다.

이에따라 시코스키는 1992년부터 1996 회계년도 까지 매년 60대의 블랙호크(사진▶)기를 美 육군에 공급하게 되며, 미국 육군에 공급되는 블랙호크 대수는 총 1천4백대(인도분 및 주문분 포함)를 상회하게 되었다.

시코스키의 주력제품인 블랙호크는 1978년 미국 육군에 최초로 인도된 이래 그레나다, 파나마 및 쿠웨이트 해방전에서 다양한 전투임무 수행능력 및 뛰어난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.

미국 해군의 대잠 헬기인 SH-60B 및 SH-60F 시호크(Seahawk) 헬기들은 UH-60의 변형기종이며, 美 해안경비대, 미국 공군, 특전부대 등에서도 UH-60 변형기종들이 운용되고 있다.

시호크 또는 블랙호크를 운용중에 있거나 주문한 해외고객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8개국에 이르고 있다.



시코스키는 미국내 산업체중 제 16위의 기업인 유니티드 테크놀로지스(UTC)의 계열사로, 세계각지의 헬기 설계, 제조업체이다. 시코스키社의 헬기들은 모든 미군부대에 폭넓게 배치되어 있으며, 전세계 30여개국에서 군용 및 민간용으로 운용되고 있다.

한편 블랙호크 헬기를 면허생산하고 있는 대한항공은, 시코스키가 미국 육군의 이번 주문에 따른 신기술개발시 그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으며, 가격상승요인 억제 효과도 얻게 된다. (자료제공 : Communications Korea)

美, 스킨드 미사일 격추용 레이저무기 곧 개발

북한 이 中東에 수출하고 있는 스킨드(Scud)미사일을 공중에서 레이저를 발사해 격추시키기 위한 2개의 본격적인 연구개발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

미국의 군사전문 주간지인 <Defense News>誌에 따르면 뉴 멕시코주 커트랜드공군기지內 필립연구소에서, 지난달부터 有人

항공기에 장착된 레이저가 공기의 저항을 뚫고 스킨드 미사일을 명중시키는 실험연구를 하고 있으며, 1994년에는 개발이 완료돼 실전 배치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.

이 레이저는 유인 또는 무인항공기에 탑재돼 1백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공중발사돼 빛의 속도로 날아가 스킨드 전술미사일을 명중, 격추시키게 된다.

매년 약 78억원(1천만불)의 개발비가 투입될 이 실험에는 보잉747등 대형 민항기가 사용되고 있으나, 개발이 끝나면 F-15 Eagle 전투기에 장착될 것으로 알려졌다.

캘리포니아주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는 이와는 별도로 원격 조종되는 무인항공기에서 수평으로 레이저빔을 발사, 스킨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실험을 하고 있다.

독일 등 차세대機로 MiG-29 浮上

舊 소련의 MiG-29 전폭기가 독일과 제3세계권의 차세대 전투기 후보로 부상, 세계 有數의 항공업체들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.

舊동독군의 MiG-29기 24대를 보유한 독일은 공군의 반대를 물리치고 MiG-29기를 계속 운용하기로 결정한데 이어, 최근 추가도입을 추진하고 있다.

독일은 통일전 남은 F-4 팬텀과 나토공군의 주력인 토네이도기를 대체, 동독과 소련의 MiG-29에 맞설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 「예거(JAEGER)90」개발 계획을 추진해왔다.

무인항공기는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고공비행을 하게 된다.

〈Defense News〉誌는 對스커드용 레이저가 4년내에 개발이 완료돼 90년대 후반에는 실전사용이 가능하며, 이로인한 軍 작전개념과 구조가 바뀌더라도 늦어도 2005년까지는 실전배치가 끝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.

〈Defense News 1992. 4. 27일호〉

그러나 이 계획은 통일후 국방예산 감축때문에 현재 보류된 상태다. 이는 1대당 약 9백억원, 총 13조 5천억원이 소요되는 이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가 깊어진데 따른 것이다.

최근 러시아는 외화획득을 위해 말레이시아 등 제3세계권에 MiG-29기를 대등한 성능의 F-15등 서방기종의 절반내지 3분의1 가격에 팔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도됐다.

서방 항공업체들은 독일에 이어 말레이시아가 MiG-29기를 차세대 주력기로 채택할 경우, 아시아, 中東, 南美국가들에 값싼 MiG-29기 선호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.

